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1호 【루계 제23103호】 주체99(2010)년 5월 31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사설

멸적의 기세드높이 대고조진군에서 선군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떨치자

지금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남조선괴뢰역적패당과 제국주의반동들의 모략책동이 발악적으로 감행되고있다. 극도의 대결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적들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초긴장상태에 있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헐뜯고 민족의 리익을 해치려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적들의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대응하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원쑤들의 아성을 짓부셔버리고 불패의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울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미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속에서 진행되고있습니다.》

적들이 무분별한 도발과 전쟁책동에 매달릴수록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갖추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동안 미제와의 항시적인 군사적대치상태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여왔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전쟁책동에 광분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뭉쳐 침략자들의 도전을 단호히 물리쳤으며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는것으로 적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였다. 원쑤들의 도발과 전쟁책동이 강화될수록 멸적의 투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전투에서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상을 당할 힘은 세상에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에게 섬멸적타격을 가하는 심정으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선군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기 위한 총돌격전이다.

우리 조국은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백승떨치는 불패의 강국이다. 선군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다져진 무한대한 정치군사적위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우리 조국땅에서는 세상을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으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은 비상히 높아지고있다.

오늘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이 악랄하게 벌리는 반공화국모략책동은 승승장구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앞에 겁을 먹고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국제적권위를 훼손시키려고 날조한 특대형사기극이다. 그러나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저들의 침략적이며 더러운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갖은 비렬한 모략을 다 꾸며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의 상투적인 책동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적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대혁신, 대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우리 조국의 존엄과 국력을 더욱 높이 떨쳐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미제와 야합한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파산시키기 위한 총공격전이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을 방해하기 위한 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시키고 국제사회를 통한 또 다른 《제재》까지 실현하여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막아보려는 역적패당과 어중이떠중이들의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역적패당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두려워하는 인민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 수십년간 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왔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있다. 우리는 적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적들의 제재와 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낄것이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적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도발과 전쟁으로 나온다면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선군조선의 존엄을 떨치겠다는 멸적의 기상을 가지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일심단결은 우리 공화국의 제일국력이며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일심단결의 근본핵인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을 함께 하고 숨결과 박동을 같이하는 천만군민의 숭고한 정신세계가 대고조진군길에서 남김없이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전투적과업과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당정책을 사소한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함으로써 온 나라에 대고조의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높은 반제자주의 정치이며 참다운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이다. 천만군민이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을 짓부시고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치는 길이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 선군사상의 철저한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치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사회주의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운 우리 당의 선군혁명실록을 깊이 체득하고 선군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오늘의 대고조진군을 불패의 군력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당정치사업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선봉투사, 결사관철의 일당백용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며 최정예혁명강군으로서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모든 전투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진행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맡겨진 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언제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역적패당의 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한계가 없는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함으로써 불은 불로 다스리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당의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며 적들의 무모한 《대응》에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의 군력을 적들의 어떤 첨단전쟁수단들도 단매에 격파할수 있는 불패의 군력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원쑤격멸의 기상으로 모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강성대국건설의 중요전투장마다에서 멸적의 기상을 높이 발휘하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일당백공격속도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오늘의 정세는 전체 인민이 불비쏟아지는 전화의 나날 싸우는 고지에 식량과 피복, 탄약을 보내주던 그 기세, 그 본때로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전투적으로 일해나감으로써 모든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특히 영농전투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생산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맞게 농촌지원사업과 인민소비품생산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기 초소를 전선으로 여기고 원쑤격멸의 결전장에 선 화선병사의 자세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최첨단돌파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고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불세출의 천출명장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백두산혁명강군이 있으며 멸적의 기상으로 떨쳐나선 인민이 있기에 승리는 우리의것이다.

모두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멸적의 기세와 투지를 안고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적들의 도발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이룩해나가자.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

외국의 인사들 강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는 외국의 인사들속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도미니까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호세 미겔 메히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선군정치를 펼치고계신다.

조선인민은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할것이다.

스웨리예의 공산당 위원장 안데르스 칼쏜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자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면서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짐바브웨공화국 내무상 켐보 캠프벨 두기쉬모하디는 이렇게 말하였다.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그릇된 선전을 하고있다. 조선방문과정에 그것이 완전히 허위라는것을 확인하였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마련하였다. 조선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김정일최고사령관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각하의 슬하에서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사회주의제도를 믿음직하게 보위하고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 마르틴 뢰체르는 조선인민은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펼치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하여 사회주의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있다. 영웅적인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섬멸적타격을 가할것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에 대한 도발책동을 즉시 중지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가 날로 로골화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여 2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와 조선의 벗들은 급격히 악화되고있는 조선반도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미국과 그 앞잡이들은 저들이 꾸며낸 구실로 정세를 격화시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위험한 책동을 벌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대세력들은 대화와 협상을 파탄시키기 위한 위험한 길에 나섰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이 2009년 12월 평양쌍무회담에 이어 뉴욕에서 또 한차례의 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교섭을 벌리는것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생각하며 환영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 미행정부는 강경한 대조선 정치, 경제, 군사적압력로선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정세의 급격한 악화를 초래할수 있는 조선에 대한 도발책동을 즉시 중지할것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의 원쑤들은 저들의 모험적인 책동이 초래할 후과의 위험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전세계의 조선의 벗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독립, 조선인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모든것을 다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30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광장은 60여년동안이나 남조선을 타고앉아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미제와 특대형 모략사기극을 조작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모여온 10만여명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대회장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기어이 이 땅우에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으며 기발게양대들에는 공화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자!》,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리명박역적을 타도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야 말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형선전화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최태복동지,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로력혁신자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영림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각계층 대표들의 토론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평양326전선공장 로동자 김혁남이 토론하였다.

그는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의 가슴은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로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역적패당이 미제와 야합하여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함선침몰사건을 리명박역
패당이 저들의 가련한 잔명을 부
하기 위해 조작한 계획적인 음모
동으로, 전례없는 특대형사기모
극으로 락인하였다.

역적패당이야말로 반통
광신자, 전쟁미치광이라
하면서 그는 괴뢰도당이
무슨 《응징》과 《제재》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어리
온 망상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천출명장의 슬하
서 자라난 우리 군대
인민은 적들의 《응징》
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으
대응해나갈것이며 민족
통진 극악한 전쟁광신자
에게 준엄한 징벌을 안길
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불세
의 선군령장이신 위대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
간직하고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마치를 억세
틀어쥐고 사업과 생활
혁명적으로, 전투적으
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
였다.

그는 만일 미제와 남조
호전분자들이 우리의 거
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끝
내 전쟁의 길로 나간다
로동계급은 정의의 성전
한결같이 떨쳐나 침략자
을 격멸소탕하고 조국통
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
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폭로규탄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3면으로 계속

열렬한 애국으로 수놓으신 고결한 한생

리보익녀사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오늘은 위대한 혁명가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탄생 134돐이 되는 날이다.

슬하의 자손들모두를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 리보익녀사.

만경대일가의 혁명적가풍을 빛내이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열렬한 애국의 넋은 오늘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에 높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였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생애는 애국으로 빛나는 만경대혁명일가의 투쟁사에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1876년 5월 31일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여 나라없는 설음을 페부로 감수하시며 고난속에서 살아오신 리보익녀사.

녀사께서는 자제분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우신 후에도 만경대사립문으로 쓸어드는 비바람을 모두 막아내며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시였다.

한가정의 행복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이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신 녀사의 애국심은 그 얼마나 열렬하고 뜨거운것인가.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그리고 일제의 철창속에서 불굴의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적극 뒤받침해주신 녀사께서는 아드님이 이역땅에서 세상을 떠나시였을 때에도 결코 슬픔에만 잠겨계시지 않으시였다.

주체15(1926)년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무송에 오신 녀사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있던 짐을 네가 메야 한다고,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라고 하시며 수령님을 혁명의 길로 적극 떠밀어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 할머니가 나에게 나라의 독립과 같은 중대사를 부탁한것은 나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할머니의 그 말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였다.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의한 신념과 굳은 절개, 그것은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천품이였다.

일제가 집요하게 벌린 《귀순공작》과정에 녀사께서 보여주신 강의한 신념과 굳은 절개는 전설같은 이야기로 세월이 멀리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눈덮인 만주광야를 1년가까이 끌려다니시면서도 주접이 들거나 의기소침해하신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쑤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을 엄하게 다불리시던 녀사의 그 음성이 지금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힘들어도 내 손자가 싸우고있는 산천을 보니 기운이 솟는다고 하시며 원쑤들을 전률케 하시던 리보익녀사.

년로한 몸으로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혁명일가의 존엄과 기개를 조금도 굽히지 않으신 강의한분이시기에 일제의 강요로 다시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항일유격대가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시면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라고 기세를 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의 강직한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였기에 일제가 할머니까지 만주의 설한풍속에 끌어내였다는 소식을 들으시였을 때에도 사사로운 인정에 묻히신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천백배의 복수심을 굳히시며 원쑤격멸의 총성을 더 높이 울리시였다.

녀사께서 남기신 고생의 흔적은 오늘도 만주의 산야에 점점이 찍혀있다.

리보익녀사께서 총 한자루 없는 몸으로 적들을 전률시킬수 있은것은 신념과 의지가 강하고 미래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시였기때문이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시기에 늙으신 몸으로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절개와 지조를 굳세게 지킨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리보익녀사는 직업적인 혁명가가 아니시였다.

학교를 다니신적도 없었고 조직적인 교양을 받으신 일도 없었다.

하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안고계시였기에 원쑤들의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다.

해방후 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부둥켜안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라고 하시며 눈물지으시던 리보익녀사.

끌끌하던 자손들이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스무해사이에 한줌 흙이 되여 낯선 산천에 뿔뿔이 흩어졌으니 녀사의 심정이 그 얼마나 아프고 쓰리시였으랴.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20년만에 고향집에 오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빈손으로 왔다고 말씀드리자 녀사께서는 왜 빈손이란 말이냐,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네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왔으니 나는 그이상 더 바랄게 없다, 네가 크고 해방이 크지 세상에 더 큰게 뭣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녀사께서는 쓰라린 아픔, 겪으신 고생은 한가슴에 다 묻어두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크고 귀중한것으로 여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가난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적과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던 풍랑사나운 세월속에서도 언제나 미래에 대한 락관과 희망,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을 꿋꿋이 살아오시였다.

해방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실 독립의 날을 기다리시였고 해방후에는 수령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였으며 그후에는 만민이 잘 사는 날과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리시였다.

그 어떤 특혜특전을 바람이 없이 끝없는 헌신과 열렬한 애국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리보익녀사의 한평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이런 불변의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 그것이 곧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가정을 위하는 길이며 자기 수령,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오류혁명사적지를 찾는 사람들은 오로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야 말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본사기자 황 명 희

숭고한 의리의 세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은 탁월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이십니다.》

주체61(1972)년 겨울 함박눈이 내리던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초소로 떠나는 한 일군을 부르시였다.

그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피심속에 만경대혁명학원을 졸업하고 나라의 중요초소를 맡은 일군으로 자라난 혁명가유자녀였다.

집무실에 들어선 그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정중히 인사를 드리자 그이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시며 지난 시기 그의 사업성과를 평가해주시였다.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아안고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일군을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친위중대에서 생활하던 때의 일이 생각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생활하던 그 나날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도 그때의 일이 자주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당에서 품을 들여 키운 혁명가유자녀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것을 보니 참으로 기쁘다고, 부모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동무들도 언제나 혁명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동무가 가서 일해야 할 단위의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단위의 사업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눈내리는 창밖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초소로 떠나가는 전사를 위해 마음쓰시며 자신께서는 늘 말하는것이지만 해당 단위의 당사업이 잘되는가 잘되지 않는가 하는것은 그 단위의 경제사업성과에 의하여 평가된다고, 동무가 이것을 명심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 당의 높은 신임에 보답하라는것을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해방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희생된 전우의 자식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한다고 하시며 혁명가유자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여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켜주시고 실천투쟁속에서 단련시켜 나라의 어엿한 일군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

오늘은 새 초소로 떠나는 한 평범한 유자녀를 위해 그처럼 귀중한 시간을 바쳐가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군은 당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떠나간 혁명전사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아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오늘 수천수만의 전사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골간으로 자라나 당이 맡겨준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여주시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찬바람이 불어치던 두해전 어느 겨울날이였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시였다.

먼저 민속오락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즐겁게 휴식할수 있게 잘 꾸렸다고 하시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윷놀이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놀이들을 적극 장려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민족의 기상과 슬기를 떨쳐주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가르치심은 민속놀이터에 만들어세운 광개토왕릉비모형과 첨성대모형앞에서도 계속되였다.

이어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 옛 건축물들에서 많이 쓰이던 회랑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회랑에 잠시 눈길을 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벽화 《동방강국 고구려》를 보시고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이것이 바로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경암산이 쩡— 울리도록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내 나라, 내 조국을 기어이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그이의 드팀없는 의지가 어려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격정에 넘쳐있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새 세대들에게 천년강국인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들이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하나의 글을 보시면서도 조선민족의 우수성에 대해 생각하시고 그것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다. 하지만 찬바람을 맞으시며 민족성고수의 귀중한 지침을 밝혀주시는 그이의 로고는 더더욱 뜨거워만 갔다.

선조들이 창조한 유적유물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다가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시고나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것을 이렇게 현물로 보여주니 얼마나 좋은가고, 력사교양자료들을 실감있게 비치한것은 대단히 좋다고 하시며 대성산을 비롯하여 오랜 력사가 깃들어있는 곳들에 이런 력사교양마당을 많이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자신께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여 훌륭히 꾸려졌건만 민속거리는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민족의 우수성을 시위하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로왔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는 의의있는 창조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에 일군들은 가슴뜨거움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떠나시기에 앞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살려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심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뇌리에 새기며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셔야 나라와 민족이 강해지고 민족의 우수성도 빛난다는 진리를 다시금 페부로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만도 오랜 력사문화유적들인 광천사, 심원사, 정광사를 돌아보시고 나라의 귀중한 문화적재보들을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민속음식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과 민족문화예술작품창작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다.

진정 민족애의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계 성 남

선군의 위력 떨치는 길에서

걸음을 멈추신 사연

언제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여러곳을 돌아보실 때였다.

산촌의 정서를 풍만하게 해주며 어디선가 뻐꾹새소리가 유정하게 울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소리를 정겹게 들으시며 잠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산림이 울창하니 뻐꾹새를 비롯한 온갖 새들이 다 찾아오고있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부대병영구역과 그 주변의 산들을 고향의 산천처럼 아끼고 귀중히 여기며 한대의 나무도 찍지 않았을뿐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나무를 심고 애써 가꾸어 울창한 수림이 우거지게 한 이곳 부대군인들의 애국심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군인들의 가슴속에 싹트고 자란 조국애가 그처럼 귀중하시여, 그 마음이 그리도 대견하시여 값높이 평가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가슴뜨거워옴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는 그들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 뻐꾹새소리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짓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일이 다 잘되리라는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다고 확신에 넘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크나큰 믿음과 기대

몇해전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종합식료가공공장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군인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공장의 여러곳을 주의깊게 돌아보시였다.

울창한 수림속에 현대적으로 일떠선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 아담하게 꾸려진 작업장들과 흐름식생산공정을 타고 나오는 각종 식료품들을 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을 위한 또 하나의 현대적인 식료가공공장이 건설된데 대하여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군인들의 식생활을 보다 향상시키는데서 이 공장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 포장용기들을 원만히 갖추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이 앞으로 높은 군인복무정신을 지니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설비관리를 잘하여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군인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기고 그이의 높은 뜻을 꽃피우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김 성 남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의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신 충 혁 찍음

선군정치의 위대성으로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당조직에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가성소다직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연구발표모임, 해설모임 등을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특히 이곳 당조직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문답식학습경연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선군정치와 관련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10여년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는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한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당면한 제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동통신원 장 명 일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는 위대한 령도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돌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우리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고 당의 령도밑에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힘있게 떨쳐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신 24돐을 맞이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장구한 기간 주체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며 우리 조국과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온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75(1986)년 5월 31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에서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로정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향도자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특징과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기본원칙,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한 경험을 비롯하여 로작에 제시되여있는 사상리론들은 당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

올해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고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으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멀고도 간고한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일을 한 로숙한 당이며 패기와 정열이 넘쳐나는 혈기왕성한 당입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자기 발전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온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건설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우리 나라에서 새형의 혁명적당건설의 출발점으로 되였으며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고귀한 전통과 업적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혁명의 나날에 마련된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당창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하신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당이 심각한 사회혁명과 준엄한 전쟁, 거창한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하여 20세기의 가장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올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더불어 끝없이 빛날것이다.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당건설령도사는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성스러운 력사로 수놓아져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혁명실천과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선군혁명의 세련된 향도자로 위용떨치게 하신것은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공적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자기의 혁명적성격을 굳건히 고수하며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올수 있었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공고화해나가시는데 있다.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내용이며 당사업의 중심과업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끊임없이 강화하여야만 당이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찌기 전당 주체사상화강령을 제시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오시였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시여 우리 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해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규률을 확립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신것은 우리 당의 사상적순결성을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시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선군시대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는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모든 당원들이 선군사상, 선군혁명로선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로 자라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은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당대렬의 정예화가 확고히 실현된 당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전체 당원들이 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어떤 복잡한 정세와 역경속에서도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정치사상적으로 결사옹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참모습이 있고 불패의 위력이 있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시는데 있다.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이며 당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라는것이 로작에 밝혀져있는 중요한 사상이다.

우리 당은 첫걸음부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련계속에서 강화발전되여왔다. 일심단결이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라면 그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은 민심이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지론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세가 복잡하고 방대한 과업이 나설수록 우리 당이 일심단결의 정치철학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손길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인민의 의사가 집대성되도록 하신데도 어려있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틀어쥐고 혁명적군중로선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도록 하신데도 깃들어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인민중시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꽃펴날수 있은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의 대표자, 옹호자로,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빛을 뿌리고있으며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더욱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전체 인민이 우리 당에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워나가고있다. 천만군민이 이 세상 끝까지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결사의 의지에 넘쳐있기에 우리 당은 굳건하며 선군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강성대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시는데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운명은 전적으로 당의 령도적역할에 달려있으며 당의 령도는 부강조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일관한 령도원칙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의 정치적지도, 정책적지도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시고 조국건설의 무기로서의 우리 당의 위력이 남김없이 떨쳐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지난해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50일전투, 100일전투를 발기하시고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영웅적위훈에로 이끌도록 하시였으며 당원들이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며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게 하였다. 지난해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선전선동공세가 드세차게 벌어지고 사회주의경쟁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게 된것은 당의 역할을 높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오늘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인민경제전반이 확고한 상승궤도에 올라서서 활력있게 전진하고 도처에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두드리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우리 당의 령도는 백전백승하며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리상과 행복이 꽃펴날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고귀한 력사와 전통을 빛내여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강위력한 정치적참모부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홍 병 우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도발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군중대회에서 한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영림동지의 보고

동지들!

지금 조선반도에는 남조선괴뢰호전광들과 그와 결탁한 미일침략자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전면파국에 처하고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내외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괴뢰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킨 이른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고 그 무슨 《응징》과 《보복》,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를 떠벌이면서 분별을 잃고 어리석게 날뛰고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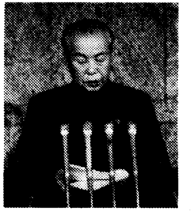
괴뢰역적패당의 망동은 우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발이고 로골적인 선전포고로서 미일상전과 야합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음모책동이며 북남관계사에 류례없는 특대형모략극입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단호한 원칙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습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우리가 취한 정당하고 원칙적인 조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있습니다.

함선침몰사건은 철저히 리명박역적패당이 미제와 공모결탁하여 꾸며낸 흉악무도한 날조극, 광대극으로서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등진 극악한 전쟁광신자들인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합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괴뢰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결부시킨것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고 《지방자치제선거》를 무난히 치르어 파쑈통치를 유지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기 위한 모략적인 음모책동으로서 파멸에 처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마다 충격적인 《북풍》사건을 조작하여 여론을 기만하고 살구멍을 찾으려고 하는것은 괴뢰역적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번 괴뢰함선침몰사건조작놀음은 북남대결의 비극적사태를 저들의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목적에 서슴없이 써먹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략과 음모책동에 미쳐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지금 괴뢰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더러운 흉계를 꾸미며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꾀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동입니다.

괴뢰역적패당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미제의 비호와 조장밑에 꾸며지고 감행되고있는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며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입니다.

미국이 《천안》호 함선침몰원인이 《십중팔구 북조선의 어뢰공격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혐의자》로 락인한데 힘을 얻은 괴뢰역적패당은 그에 맞추어 모략적인 《조사》놀음을 벌리면서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조사결과》라는것이 발표되자마자 미일반동들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은 그 무슨 《공격행위》니,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전》이니 뭐니 하고 우리를 걸고들며 《제재》와 압력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괴뢰함선침몰사건이 미국과 일본반동들의 비호조장밑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역적패당의 모략극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이 괴뢰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미일상전들과 야합하여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새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하여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괴뢰역적패당이 그 무슨 《대결》을 운운하며 외세와 공조하여 《응징》과 《보복》의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즉시적인 보복타격, 자비를 모르는 강력한 물리적타격으로 대응할것입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국제사회계는 이른바 《화약성분》과 《합금조각》, 《1번》이라는 글씨체며 《ㄷ자형》의 경로 등 허황하고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는 날조로 하여 모순과 의문투성이인 리명박역적패당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반공화국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역적패당들을 단호히 징벌하기 위한 판가리결전에 용약 떨쳐나 가증스러운 매국반역패당을 단매에 짓부셔버리고야 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튼튼히 준비된 우리 군대와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멸적의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인 리명박역적패당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이 땅우에 온 민족이 강성하는 통일대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우리를 건드리려는 미일침략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인류의 정의와 진리에 도전하는 극악한 전쟁광신자들에게 무자비하고 단호한 징벌을 안길것입니다.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끝끝내 전면파국에 이르게 한 리명박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은 력사와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외세와 야합하여 서푼 모략극을 꾸며내고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리고있는 괴뢰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입니다.

모든 당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도발책동을 정의의 보복성전으로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결사의 각오와 멸적의 투지로 조국수호와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군인들과 근로자들은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이 악랄해지면 질수록 필승의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맞받아나가 단호히 짓부셔버리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합니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혁명의 수뇌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모든 승리의 기치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굳건히 옹호보위하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있기에 천만대적이 달려들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쳐와도 언제나 승리한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경애하는 장군님두리에 철통같이 일심단결하여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도발과 전쟁책동을 산산이 짓부셔버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조선괴뢰역적패당과 미일침략자들의 발악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즉시적이고도 무자비한 섬멸전을 벌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나아가는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은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과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한 성스러운 길이며 주체의 강성대국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우리의 전진은 원쑤들의 그 어떤 전쟁위협도 《제재》와 압력도 절대로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거세차게 일으키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올해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의 사상과 정신을 받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의 수뇌부의 탁월한 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천백배로 다져진 자위적국방력의 무진막강한 위력이 있기에 우리는 미일침략자들과 리명박역적패당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반괴뢰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아갑시다.

1면에서 계속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위영애는 지금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함선침몰사건이라는 모략극을 꾸미고 이를 기화로 벌리는 적들의 악랄한 대결광증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사상최대최악의 도발책동이며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라고 강조하였다.

외세와의 공모결탁으로 북남관계를 전면파국에로 몰아가고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극악한 원쑤이며 흉악한 매국노들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미제와 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과 침략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쑤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의지를 지니고 우리의 기름진 옥토와 푸른 하늘을 굳건히 지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렬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시식량을 보장한 농민들처럼 한손에는 총을, 다른 손에는 낫을 들고 침략자들에게 철추를 안기는 심정으로 모내기를 비롯한 당면한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제낄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농업근로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조국의 대지우에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을 안아옴으로써 10월의 대축전을 빛내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평양시청년동맹위원회 1비서 리군철이 토론하였다.

그는 선군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한다고 하면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을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락인하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이번에 벌려놓은 대결소동은 그 파렴치성과 무모성, 악랄성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을 능가하는 최대의 광대극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역적패당이 함선침몰사건초기부터 미제의 지령에 따라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으며 미일침략자들과 공모결탁하여 국제적인 《제재》에 대해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은 적들의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단호히 대답할 열의에 넘쳐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이 조국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고 성새, 방패가 될 결의를 표명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미제를 등에 업고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청년학생들은 투철한 사회주의수호정신을 지니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생명을 바친 리수복영웅을 비롯한 전화의 영웅들처럼 원쑤격멸의 성전에서 피끓는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 싸울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청년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서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선군시대 혁명적대고조의 돌격대,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로, 조국수호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된 청년학생들이 만단의 태세를 견지하며 감히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여 원쑤들을 격멸하고 이 땅우에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라고 말하였다.

지식인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과학연구쎈터 소장 리관호는 적들이 《천안》호침몰사건을 날조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에 미쳐날뛰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취한 단호하고도 정당한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그는 전체 지식인들의 이름으로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6.15통일시대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단죄하였으며 적들의 특대형범죄행위를 단호히 규탄하였다.

역적패당이 미일상전의 비호밑에 날조해낸 함선침몰사건은 궁지에 빠진 저들의 잔명을 어떻게 하나 유지해보려는 단말마적인 발악의 일환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남조선괴뢰들이 미제를 등에 업고 우리 공화국에 그 어떤 《응징》이나 《제재》를 가해온다면 천만군민은 즉시 정의의 섬멸전으로 대답할것이며 세계는 우리가 민족의 온갖 오물을 제거하고 강성하는 통일조선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지식인들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열혈의 혁명투사, 선군조선의 참된 지식인이 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지식인들이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리를 과학과 기술로 확고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전체 참가자들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신념과 의지가 담긴 구호들을 힘차게 불렀다.

대회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가슴 불태우는 군중대회참가자들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국토관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비결

성천군에서

성천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전변시켜나가고있다.

군에서는 강동—성천—회창사이의 수십㎞에 달하는 도로를 번듯하게 정리하고 위험개소들에 옹벽공사를 하였으며 수백정보의 면적에 밤나무를 심고 여러 강하천들을 새맛이 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읍지구에 근 2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려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성과의 비결은 군책임일군들이 대중의 힘을 믿고 국토관리사업을 위한 작전을 면밀하게 짜고든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국토건설사업을 전인민적애국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비류강을 다스리기 위한 문제가 일정에 올랐을 때였다.

비가 많이 내릴 때면 비류강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수위가 높아져 비물이 미처 빠지지 못하군 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읍지구의 면모를 일신시킬수 있었기때문에 결정적으로 강폭을 넓혀야 하였다. 그러자면 한개의 산봉우리를 몽땅 들어내야 하였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군책임일군들이 현장을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타산해보니 공사량이 간단치 않았다. 방대한 일감에 비해보면 로력도 모자랐고 자재도 긴장하였다.

《향토를 꾸리는 사업은 강성대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중을 불러일으켜 우리 힘으로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꾸려나갑시다.》

군당책임일군이 먼저 자기의 결심을 내놓으면서 청년들로 돌격대를 조직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감을 맡아서 해제끼게 하자고 하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에게 어려운 일감을 통채로 맡겨주어 그들을 더 내세워주기 위해서였다.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년들이 저마다 떨쳐나섰다. 산봉우리를 통채로 들어내기 위한 집체적인 토의가 여러차례나 벌어졌다. 발파를 하여 산봉우리를 통채로 없애자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발파에서 제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겠다는 청년들도 있었다. 군일군들은 대중의 창발적인 의견들에 기초하여 비류강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드디여 전투가 시작되였다. 함마질소리, 곡괭이질소리가 그칠새 없이 울리고 청년들은 질통이 넘쳐나게 돌과 흙을 담아지고 달리고 또 달리였다. 군책임일군들은 공사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갔다.

드디여 봉우리를 없애버리기 위한 발파준비가 되였다.

《쿵— 쿠궁—》

지심을 울리는 둔중한 발파소리가 골짜기들에 메아리쳤다. 순간 비류강의 한부분을 막고있던 봉우리가 몽땅 무너져내렸다.

일군들과 청년들은 첫 발파경험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강폭을 훨씬 넓힐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용기백배하여 공사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청년들은 발파를 하는 과정에 마련된 수만㎥의 돌을 제방장석공사에 효과있게 리용하여 읍지구의 면모를 일신시켜나갔다.

군일군들은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대중을 발동하여 고향산천을 보다 살기 좋은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었다.

읍지구의 도로를 확장할 때였다. 수백m의 로반확장공사와 도로량옆의 장석공사를 해내자면 많은 량의 막돌과 자갈, 석비레가 있어야 하였다. 아름찬 일감이였다.

군일군들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해낼수 있다고 하면서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읍지구의 가두인민반원들도 발동하였다. 도로의 기술개건공사를 통하여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인민반장들의 역할을 더 높이고 집단주의의 위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대중의 정신력이 총발동된 결과 도로기술개건공사는 며칠동안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날이 갈수록 변모되는 군의 모습에서 신심을 가진 군일군들은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다.

군일군들은 향풍지구의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킬 때에도, 상하지구의 강하천을 정리하고 장석공사를 할 때에도, 수백정보의 면적에 밤나무를 심을 때에도 뜨거운 향토애를 지닌 대중의 힘을 믿고 군중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켜 완강하게 밀고나갔다.

경험은 일군들이 대중의 힘을 믿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 사업을 전개해나갈 때 고향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개별담화와 높아진 결의목표

구성고려약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3대혁명붉은기 구성고려약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를 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잘 반영되게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초급당위원회가 결의목표를 세우기 위하여 생산자대중속에서 토의사업을 조직하였을 때였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욕심이 많은 초급당비서 재현호동무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다. 재간도 많고 일도 잘하지만 말이 적은 일부 로동자들이 문제토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담화는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형식이며 가장 효과적인 교양방법입니다.》

그날 저녁 초급당일군은 별로 의견을 내놓지 않았던 종업원들의 집을 찾았다. 그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던것이다. 그날 밤깊도록 여러 종업원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초급당일군은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한사람한사람 무릎을 마주하고 흉금을 터놓고 담화를 해보니 예견했던것보다 더 좋은 의견들을 듣게 되였던것이다. 역시 개별담화는 사람과의 사업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들었다.

오래동안 공장에서 일해온 한 로동자는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 보약들을 더 생산하자는 안을 제기하였고 재간이 많은 어느 한 로동자는 새로운 현대적인 설비들을 만들어 대중의약품생산을 부쩍 높이자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다.

초급당일군은 그들에게 왜 대중토의를 할 때에는 말이 없었는가고 묻자 그들은 얼굴을 붉히며 원래 말주변이 없는데다가 혹시 자기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 일군들을 난처하게 만들가봐 주저했다는것이였다.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초급당일군은 앞으로는 좋은 의견들을 서슴없이 내놓자고, 그렇게 할 때만이 2중3대혁명붉은기를 하루빨리 쟁취할수 있다고 그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초급당일군은 개별담화과정에 제기된 의견들을 놓고 다음날 지배인 신선애, 부원 최명철동무들과 마주앉았다. 일군들은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결의목표에 반영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초급당일군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다시 대중토의에 붙였다. 모두가 통이 큰 목표라고 하면서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이 큰일을 하게 되였다고 기뻐하였다.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생산자대중의 한결같은 마음이 반영된 결의목표가 세워지게 되였으니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된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결의목표실현에로 로동자들을 적극 불러일으키면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었다.

결의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 공장에서는 대중의약품과 상비약품생산을 부쩍 높이게 되였으며 효능높은 보약도 생산하게 되였다. 대중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는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해 종합작업반과 주사약작업반의 당세포들은 충성의 당세포들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높이 세운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결의목표들은 한조항씩 모가 나게 실현되여가게 되였다.

이 공장 초급당위원회의 사업은 대중토의와 개별담화를 적절히 배합하는것이 대중운동의 결의목표설정과 그 실현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종석

보다 큰 비약에로 추동하며

신의주신발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이 올해를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기술혁명의 불길드높이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공장당조직의 지도밑에 소조책임자 김현기동무와 백금철, 원정혁, 박진옥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기술자들과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신발창의 경량화를 실현하고 외팔재단기의 생산공정을 개조하였으며 재단자투리를 회수리용할수 있는 설비들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소조원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재생고무말류공정과 전력감시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전투에 청춘의 지혜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가고있다.

폭풍치며 비약하는 내 조국의 대고조진군속도에 발맞추어며 높은 기술혁신성과로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하게 들어서려는 소조원들의 불타는 창조의 열정은 맵시있고 질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떨쳐나선 공장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채인철

매국역적패당을 쓸어버리는 심정으로 총공격전을 벌리는 김철

류례없는 특대형반공화국모략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려고 미쳐날뛰는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복수심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김철의 로동계급이 용약 일떠섰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선봉에서 철강재증산으로 혁신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온 그들은 리명박역적패당의 머리우에 쇠물폭포를 들씌우는 심정으로 5월에도 철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에 넘쳐있다.

김철이 한번 용을 쓰며 일어날 때 어떤 큰 변이 나는가를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배짱과 진심에 넘쳐 오늘도 김철의 로동계급은 일터마다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날에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다.

글 본사기자 로주봉
사진 전성남

그들은 《적기가》를 부르며 공격전을 벌리였다

대고조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앞장에서 달리는 김철이 끓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매달 철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영웅적로동계급은 2.4분기에도 승리자의 영예를 떨칠 필승의 신심에 넘쳐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이 성과속에는 압연강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을 위하여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며 과감한 공격전을 벌린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자재수송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며 영원한 조선의 정신입니다.》

북방의 1월은 례년에 없이 추웠다. 그 모진 추위와 눈보라속을 뚫고 북방의 어느 한 항을 떠난 한대의 승용차를 따라 기중기차가 달리고있었다.

《김철에서 철강재를 펑펑 생산해야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현실로 꽃펴나게 됩니다. 그러니 김철이 요구한다면 기중기차뿐아니라 그 무엇이든지 다 보장하겠습니다.》

달리는 승용차에 말없이 앉아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방금전 그곳 항의 일군들이 하던 말이 되새겨지자 눈굽이 젖어옴을 금할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압연강재생산에 필요한 자재수송전투를 시작하던 때의 일이 다시금 되새겨졌다.

올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선봉에 설것을 뜨겁게 호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안고 김철의 로동계급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올해의 첫 진군길에서부터 어느 직장, 단위에서나 과감한 공격전을 벌리며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그중에서도 압연강재생산전투로 낮과 밤을 이어가는 열간압연직장 로동계급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그들은 하루 압연강재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고도 성차지 않았다. 압연강재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어느 한 자재보장사업이 미처 따라서지 못할 때였다.

그날도 열간압연직장에 나왔던 지배인은 생각이 많았다.

(압연강재생산을 펑펑 내밀자면 결정적으로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앞세워야 한다.)

이렇게 결심을 굳힌 지배인은 그날 저녁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일군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그 자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압연강재생산을 계속 내밀기 어렵다. 더우기 우에서 그 자재를 보장해줄 때까지 기다릴수는 더더욱 없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지배인은 그 자재수송을 위한 돌격대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련합기업소당조직이 지배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그날 모임에서는 업무부지배인, 고무가공직장 직장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여러 단위에서 선발된 성원들로 자재수송돌격대가 조직되였다.

이튿날 련합기업소당책임일군이 돌격대원들과 함께 자재수송을 위하여 수백리 떨어진 현지로 떠났다.

황소도 넘어뜨린다는 그곳 지대의 눈보라는 이해의 1월에 례년에 없이 더욱 세찼다. 눈보라속에서 －30℃를 오르내리는 모진 추위를 이겨내며 밤에는 자동차의 전조등을 켜고 전투를 벌린다는것은 정말이지 말처럼 쉽지 않았다.

…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전투장에 도착하여 첫 전투에 돌입하던 날 그 누군가가 먼저 뗀 《적기가》의 노래가 그때부터 그들의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인양 낮이나 밤이나 그칠줄 몰랐다.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곳 지역의 당원돌격대, 청년돌격대와 여러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달려왔다.

그럴수록 김철의 돌격대원들은 더욱 분발하였다.

—뜻깊은 올해 대고조의 선봉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당창건 65돐까지 년간 압연강재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무조건 보장하자.

이런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돌격대원들은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였다. 그날도 자재를 용기에 담으며 돌격대원들과 함께 전투를 벌리던 당책임일군은 자재를 화차에 옮겨싣기 위하여 화물역으로 간 기중기차가 돌아오지 않아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화물역에서는 돌격대원들이 자재부림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속에는 몇시간전에 교대한 돌격대원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로 다가간 당책임일군은 엄하게 질책하였다.

《동무들은 교대시간을 초과하며 오늘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는데 또 여기에 나왔소? 당장 숙소로 들어가시오.》

그러자 돌격대원들은 얼굴에 웃음을 담고 이렇게 말하였다.

《책임비서동지, 우리의 하루 전투계획은 200%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계획을 200% 수행하였다고 어찌 숙소로 들어갈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휘몰아치는 눈보라에는 아랑곳없이 《적기가》를 부르며 일손을 다그쳤다.

낮이나 밤이나 전투장에 메아리친 《적기가》. 그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기어이 고난과 시련을 뚫고 헤쳐나갈 돌격대원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의 메아리였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자재부림전투를 벌리다가 기중기차를 타고 화물역에서 돌아오는 당책임일군은 생각이 많았다.

(돌격대원들은 교대를 마치고도 련합기업소에 하루라도 빨리 자재를 보내주기 위하여 화물역에서 또 전투를 벌리는데 책임일군인 내가 아무러한 대책도 없이… 한대의 기중기차가 더 있어야 한다.)

이리하여 그날 밤 당책임일군은 북방의 어느 한 항으로 떠났던것이며 김철을 진심으로 도와나서는 그곳 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이 어린 기중기차를 가지고 전투장으로 돌아오게 되였던것이다. …

그날 밤 돌격대원들은 당책임일군을 둘러싸고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며칠후 자재를 가득 실은 화물렬차가 련합기업소를 향하여 떠났다. 울부짖는 눈보라소리를 짓누르며 밤하늘에 기적소리가 길게 메아리쳐갔다. 그 기적소리에 화답하는듯 돌격대원들은 《적기가》를 힘차게 부르며 또다시 공격전에 나섰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항일의 투사들이 백두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며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였듯이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전인불발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 무한한 헌신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기어이 열어야 함을 삶과 투쟁의 진리로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강철1직장에서

기술혁신으로 생산에서 비약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강철1직장에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강철생산을 종전보다 비약적으로 높이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의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자력갱생의 정신을 지니고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고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강철1직장에서는 과학과 기술로 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올해 정초부터 직장안에 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특히 직장에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릴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기술혁신사업에로 종업원들을 한사람같이 불러일으켰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직장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두다 참가하는 기술혁신 및 착상발표회를 조직하였다. 발표회에서는 로수명을 높이기 위한 방도, 출강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방도,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강철, 압연강재생산을 높이 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 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기 혁신안들이 수많이 제기되 다. 직장에서는 작업반들 서 이러한 기술혁신안들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감한 돌격전을 벌리도록 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현행생산을 하면서 새로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하기 한 과정에는 애로가 많았다 그러나 주입작업반원들을 롯한 직장안의 종업원들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대 조의 열풍을 일으켜나가 새 기술의 개척자, 전초병 될 불굴의 의지를 안고 낮 밤을 이어 도입전투를 벌 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는 수명을 높이고 중간남비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 적문제들을 비롯하여 여러 의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들이여 한교대에서 지 기간에 비하여 강철생산 2배이상 높이는 성과를 룩하였다.

당창건 65돐을 강철, 연강재생산성과로 자랑차게 빛내일 필승의 신심과 락 에 넘쳐 강철1직장에서 기술혁신 및 착상발표회에서 제기된 원단위소비기준을 추고 설비를 현대화하며 폐 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받아 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김철의 미더운 녀성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날 저녁이였다. 련합기업소 보수2직장 로동자 김정금, 류룡순, 박명옥동무들이 퇴근길에 한직장에서 일하는 한옥련동무의 집에 들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김철로동계급을 새해전투의 선봉에 내세워주시였는데 녀성들이라고 맡겨진 일만 하는것으로 만족할수 없다. 그래서 하루일을 끝내고 밤마다 련합기업소의 중요전투장들에 나가 전투원들을 고무해주는 동무처럼 우리도 두몫, 세몫 하겠다는 그들의 말에 한옥련동무는 기뻐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고마와요. 우리 힘을 합쳐 철강재생산에 적극 이바지합시다.》

그때부터 그들은 밤마다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그 어느 직장에 나가든 먼저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에 대한 관리사업부터 한 다음 쇠물길도 정리하고 설비와 배관관리사업도 하였다. 뜻하지 않게 보수전투를 벌릴 때에는 필요한 자재도 보장해주고 쉴참이면 오락회를 벌리며 로동자들을 고무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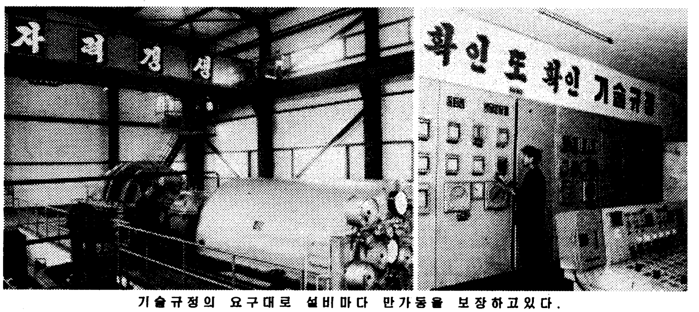
어느날 용광로직장 2호로에서 1차출선후 뜻하지 않은 일로 2차출선이 어렵게 되였을 때였다. 그들은 즉시 용광로직장으로 달려가 쇠물길정리, 설비청소 등 출선을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갔다. 그리고는 용해공들앞에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보수2직장 녀성들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은 용해공들은 2차출선을 위한 전투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그날 2호로 1작업반에서는 최고생산기록을 돌파하게 되였다. 그때 그들을 찾아와 새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1작업반원들은 말하였다.

《축하는 보수2직장의 녀성혁신자들에게 하십시오.》

보수2직장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날개를 달고 퍼졌다. 지난 4월에는 련합기업소 로동보호물자공급원 송명숙, 고속기계수리1직장 통계원 조순옥동무들도 그들에게 합세하였다.

《우리도 동무들처럼 철강재증산을 위하여 두몫, 세몫 일하겠어요.》

김철에서는 이런 녀성들이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그들이 밤마다 달려가는 전투장마다에서는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마다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대고조의 선구자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과장 양석규동무는 자재보장부문에서 30여년동안 일하면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참된 자재일군이다.

그는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하여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으며 화학공장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리용하여 여러가지 자재를 생산할수 있는 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리고 이미 리용한 자재도 되살려쓰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놓고있다.

—자재보장일군은 물감장사처럼 일하여야 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면서 담당한 자재를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가고있다.

소결1직장 1호로 로장 방명식동무는 자랑많은 초급일군이다.

24년전 김철에 제대배낭을 푼 그날부터 군인정신, 군인기백으로 언제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그는 로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몇해전부터 자체의 힘으로 축산기지를 비롯한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이 은을 내게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높은 생산적열의를 안고 소결광생산에서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는 매달 소결광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용광로직장 2호로 용해공 림철하동무는 선동원이며 《용해공시인》이다.

얼마전 작업반에서 월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전투를 벌릴 때였다.

그는 시 《계획》을 써서 전투장에 내붙이였다.

계획을 수행하지 못한 전사는 오늘의 대고조전투대오에 설자리가 없다는 그 시를 보고 작업반원들은 교대없는 전투를 벌리여 월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28년동안 용해공으로 일해오는 그는 많은 기능공을 양성하여 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양석규동무

방명식동무

림철하동무

철강재생산을 힘있게 지원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잘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서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금속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것입니다.》

포항구역의 책임일군들은 올해 김철의 로동계급과 대고조의 선봉에서 함께 달리는 심정으로 철강재생산전투를 힘있게 지원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활동, 직관선동사업, 의료봉사일군들의 현장치료 등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구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동, 인민반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그리하여 올해 정초부터 온 구역이 김철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끓어번지였다. 구역당, 구역인민위원회는 물론 구역상하수도사업소, 구역편의봉사사업소, 구역제1인민병원, 청진화장품공장, 수북중학교, 북향중학교, 남향중학교 등 구역안의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남향1동, 남강2동, 청송3동을 비롯한 동, 인민반의 가두녀성들까지 떨쳐나섰다.

포항구역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매주 강철2직장에 나가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용해공들의 일손도 도와주며 경제선동도 힘있게 벌려나갔다.

남향1동 녀맹원들은 성의있는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혁신자축하모임도 벌리면서 용해공들이 강철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도록 고무해주었다. 포항구역 제1인민병원 일군들은 이동치료봉사대를 조직하고 현장에서 치료봉사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김철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 가슴깊이 새기며 철강재생산에서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수북중학교에서는 기동적인 직관선동으로 김철로동계급의 생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을뿐아니라 현지소묘창작활동을 활발하게 벌리여 용해공들을 고무해주었다.

조국을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겨간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서— 본사기자 적용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다툭 스리 텡구 아드난 텡구 만쏘르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 총비서가 24일 박룡연 말레이시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석상에서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그이께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리와 번영에로 이끄시는 고귀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말레이시아 전국말라이통일당과 조선로동당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게 발전하고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조선중앙통신】

6월중 지자기현상

6월에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들은 다음과 같다.

3일, 6일, 12일, 14일, 17일, 20일, 24일, 29일.

본사기자

보답의 길에 아름다운 자욱 새겨가며

김만유병원 과장 리영찬동무

얼마전 김만유병원을 찾았던 우리는 어느 한 소개판앞에서 자리를 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우리는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소개판에는 최근 병원에서 이룩한 주요성과들이 직관적으로 반영되여있었다.

《탄닌치핵경화주사약의 치료효과가 그렇게 크다면서요?…》

《글쎄 주사 한대로 단번에 병을 고쳤는데 그 약이 정말 신통합디다.》

《리영찬과장선생님이 정말 큰일을 했구만요.》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리영찬동무, 그는 청춘시절부터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오늘까지 근 40년간을 오직 보답의 한마음으로 나라의 의학과학기술발전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타는 사색과 열정을 바쳐온 참된 의료일군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10여년전 어느 봄날이였다.

이윽토록 창밖을 내다보는 리영찬동무의 마음은 괴로왔다. 록음우거진 가로수들사이로 멀어져가는 한 청년의 모습이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선생님, 어떻게 단번에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피가 한동이씩 끓는 이때 남들은 조국을 위해 큰 공을 세우는데 난 병원출입만 하고있으니…》

오래동안 그에게서 치료를 받아온 청년의 하소연이였다.

그 말이 자꾸 되새겨질수록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그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환자들에게 수술적고통을 주지 않으면서도 하루빨리 완치시킬수 있는 방도를 내 기어이 찾아내리라.)

사실 내치핵에 대한 경화로법은 이미전부터 다른 여러 나라들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실시되여오고있었다.

그러나 경화작용이 약하고 지속시간이 짧은것으로 하여 내치핵초기에는 효과가 있으나 만기내치핵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있었다.

이튿날부터 그의 책상에는 류다른 책들이 쌓아지기 시작했다.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경화제의 처방을 조성하자면 그에 필요한 약제들의 약리작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였던것이다. 하여 그는 집도를 비롯한 치료사업을 하는 바쁜 속에서도 짬짬이 시간을 내여 자료작업을 진행하였다. 하나의 자료를 얻기 위해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의학과학원 등 자료기지들을 찾아 그가 걸은 길은 그 얼마이던가.

곁의 의사들조차 갑자기 약학부문으로 전공을 바꿀 결심을 했는가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직심스럽게 연구사업을 해나갔다.

림상활동과정에 쌓은 경험들을 재정립하며 며칠째 밤을 새우던 어느날 그는 갑자기 의식이 몽롱해지는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남편의 연구사업을 도와 곁에서 잠 못 들던 그의 안해가 비칠거리는 그를 다잡아 일으켜세웠다.

사실 불치의 병으로 수술을 받은지 얼마 안되여 안과수술까지 받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것은 충분한 안정과 휴식이였다. 그런데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초불처럼 자기 몸을 태우고있으니 무쇠로 만든 인간인들 견딜수 있으랴.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옹다문 안해의 손을 꽉 잡고 리영찬동무는 나직이 말하였다.

《내 여생을 조국에 보탬이 되게 살고싶소.》

수술칼을 든 외과의사인 그에게 있어서 탄닌치핵경화주사약을 만드는 일은 반드시 맡아 수행해야 할 과업은 아니였다. 그 일을 외면한다고 하여 누가 탓할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순탄치 않은 이 길을 택하고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자기의 량심을 자욱자욱 수놓아갔다.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가슴에 안고 보답의 한길을 이어나갔다.

점차 연구종자를 꽃피울수 있는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효능높고 질좋은 주사약을 만들어내기 위해 약무일군들과 진지한 탐구를 거듭해나가는 나날속에 탄닌치핵경화주사약에 의한 치료방법도 보다 새롭게 확립되게 되였다.

마침내 그의 헌신적인 노력과 고심어린 연구는 열매를 맺었다.

당조직의 커다란 고무와 집단의 진심어린 방조속에 림상에서 절대적인 수술적응증으로 되여있던 만기내치핵을 경화로법으로 치료할수 있는 탄닌치핵경화주사약이 완성되였던것이다. 그것은 곧 의학자로서 그가 남긴 생의 흔적이였고 당에 드리는 보답의 열매, 자력갱생의 피타는 창조물이였다.

그가 연구완성한 탄닌치핵경화주사약은 지난해 진행된 어느 한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였다.

과학기술성과등록증과 발명권 등 수십건의 증서들을 수여받았을뿐만아니라 능력있는 의료일군들을 많이 키워낸 그는 지금 70살을 바라보는 인생의 로년기에 있다. 그러나 래일에 대한 사랑을 안고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살며 일하는 그의 심장은 당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맹세로 불타던 젊은 시절 그때처럼 고동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안평호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해치는 역적배들을 단호히 심판하자

동족대결정책은 파탄을 면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갈수록 심화되고있는 정치경제적위기와 내외의 강력한 규탄, 배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동족대결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반역패당의 대결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완전히 파탄되였으며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성이 날로 커가고있다. 조성된 사태는 남조선통치배들의 동족대결정책이 민족운명개척의 앞길에 얼마나 파국적인 후과를 미치는가를 실감하게 하고있다.

동족대결은 나라와 민족을 등진 반역자들의 생존방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역패당의 출로로 될수 없다. 《실용》보수패당의 무모한 대결전쟁책동에서 우리 겨레는 반역자들이 가닿게 될 비참한 운명의 종착점을 보고있으며 그 파멸의 불가피성을 확신하고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동족대결책동은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기 위한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파쑈독재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자들이 의거하는 통치방식으로서 오래 가지 못한다. 남조선에서 《실용》파쑈독재를 실시한다는 그자체가 벌써 보수집권세력이 총칼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저들의 지배체제를 유지할수 없다는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집권위기가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실용》의 간판을 내걸고 권력의 자리에 오른 보수집권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떠벌이면서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북남대결에로 나아갔다. 남조선의 식민지예속화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파쑈독재를 되살리고 그 무슨 《원칙고수》를 떠벌이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간것으로 하여 반역패당은 집권초기부터 줄곧 《초불공포증》, 《광장공포증》에 시달려왔다. 《실용정권》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심화되여 5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있다. 지난 집권 2년동안에 자체로 영업하며 살아가던 자영업자가 무려 51만여명이나 파산되여 빈궁자로 전락되였으며 구제를 받지 못하면 살아가기 곤난한 극빈세대는 300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현재 《5대불안》이라고 불리우는 만성적인 정신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살아가고있는 형편이다. 이것은 극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강부자정권》의 통치지반에 깔려있는 무시무시한 《시한탄》이 아닐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로의 남조선인민들의 관광길까지 가로막은 죄행은 반역패당으로 하여금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끝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다.

바빠맞은 보수패당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동족대결에서 찾고 그렇듯 필사적으로 날뛰고있는것이다.

함선침몰사건이후 남조선에서 더욱 고개를 쳐드는 《북주적》설도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은 그 누구의 《위협》을 운운하며 이전 《정권》때 《국방백서》에서 사라진 《북주적》표기를 다시 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문민》파쑈독재시기에 나온 《주적》론이 남조선에서 다시 나왔다는것은 동족에 대한 현 보수집권세력의 립장과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전쟁과 같은 군사적폭력의 방법으로 소멸할 주되는 대상이 《주적》이라는것을 념두에 둘 때 그것이 북남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엄중하고 심각하다. 괴뢰패당이 떠벌이는 《주적》론은 두말할것없이 북침전쟁론이다.

《실용》보수패당이 집권초기부터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대결정책을 표방한것도, 외세와 야합하여 해마다 대규모적인 북침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은것도, 그 무슨 《급변사태》에 대처한 작전계획까지 공개하며 무력증강과 대결에 미쳐날뛴것도 다 반민족적인 《주적》관념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는것은 명백하다.

피를 나눈 우리 겨레가 《주적》으로 되여야 할 리유는 어디에도 없다. 60년이 넘도록 북과 남이 갈라져있는것은 반드시 소멸해야 할 적이여서가 아니라 그런 비극을 강요한 외세때문이다.

그런데 단합과 통일의 상대인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있으니 《실용》보수패당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는 대결미치광이들이다.

대결광신자로서의 남조선보수패당의 반역적정체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통해서도 날날이 드러나고있다.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감히 걸고드는 《인권》모략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우심하게 벌어지고있다. 보수패당은 그 무슨 《인권위원회》안에 《북인권팀》이라는것을 새로 내온데 이어 숱한 《예산》을 쏟아부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내외에 적극 여론화하려고 꾀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자유시민련대》, 《뉴라이트전국련합》을 비롯한 극우익보수단체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인권》광대극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다.

사실상 파쑈독재광들이 신성한 인권에 대하여 떠벌이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오늘 남조선은 《실용》보수패당의 집권으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말살된 암흑사회로, 독재와 폭압이 란무하는 인권의 무덤으로 더욱 전락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민주세력들이 《리적, 불법단체》로 몰려 탄압, 말살당하고 진보적언론에 파쑈의 자갈이 물려지고있으며 생존의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마저 무자비한 폭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한양대학교 교수가 《현 〈정권〉에 들어와 1년반만에 이남사회는 인간의 존재가치가 말살되고 파시즘시대에 진입하였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인권페허지대에서 울려나오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범죄적목적이 저들에게로 쏠리는 분노한 민심을 따돌리고 인민들속에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데 있다는것은 더이상 론의할 여지도 없다.

반역패당이 이미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종국적멸망으로부터 건져보려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으나 그것은 헛된짓이다. 역적패당이 발악하면 할수록 그들의 멸망만 앞당겨질뿐이다. 이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이다. 60여년에 달하는 남조선의 인민투쟁사는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가 종당에는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 사대매국노, 파쑈폭군, 전쟁광신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한두번만 보여주지 않았다.

동족대결에 피를 물고 나선 《실용》보수패당의 발악적책동은 력대 반역통치배들의 말기증상 그대로이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파멸도 멀지 않았다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다.

최 철 순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

온 겨레의 기대와 관심속에 준비사업이 적극 다그쳐지던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가 남조선보수패당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파탄되게 되였다.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결부시키며 대결전쟁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리명박패당은 이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개최를 처음부터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행사준비를 위한 6.15민족공동위원회회의와 실무접촉들을 파탄시키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그러던 끝에 이번에 남측대표들의 행사참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의 력사적의의를 짓밟고 민족의 통일념원에 칼질하는 용납 못할 반통일행위이며 민간통일운동마저 철저히 말살하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거침없이 몰아가는 엄중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측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평양에서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를 성대하고 의의있게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다그쳐왔다. 이것은 최근 북남사이에 날로 격화되고있는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6.15통일시대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반영한것이였다.

그러나 통일과 담을 쌓은 보수패당은 북과 남, 해외가 마주앉아 6.15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벌리는것을 저들의 반통일대결정책실현의 장애로 여기면서 그에 서슴없이 차단봉을 내리였다. 이것은 곧 북남공동선언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이다. 온 겨레가 지지찬동하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집권초기부터 《북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든 용공리적문건》이니, 《정체성을 훼손시킨것》이니, 《무책임한 합의》니 하고 헐뜯으면서 그 리행을 악랄하게 거부해온 반역패당에게 공동선언발표와 관련한 기념행사가 반가울리 만무한것이다.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과거의 대결시대를 복구하기 위해 미쳐날뛰여온 역적패당에게는 민족공동행사에 대한 관심은커녕 그것을 파탄시킬 흉심밖에 없었다. 이번 망동으로 남조선보수당국은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면서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저들의 반민족적정체를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반세기이상 지속되여온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를 가시고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하지만 보수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온 겨레가 힘을 모아 이룩한 6.15의 성과들을 무참히 짓밟아왔다. 6.15를 부정하고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관계자들을 《친북좌파》와 《용공세력》, 《간첩》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하다 못해 북남공동선언들에 서명한 전직《대통령》들까지 모함, 박해하여 죽음에로 몰아간것이 바로 보수패당이다. 북남사이에 정례적으로 진행되여오던 6.15공동통일행사들과 북남로동자들의 5.1절공동행사를 비롯한 각계층의 통일행사들이 근 2년간 한번도 열리지 못한것도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죄악을 날날이 폭로하는 단적인 실례이다. 현실은 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안에 그대로 둘수 없는 반역의 무리, 통일의 극악한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괴뢰들은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전쟁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지방자치제선거》를 앞두고 동족을 허무니없이 걸고드는 상투적인 수법으로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며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통일애국운동을 가차없이 말살해버리자는것이 그들의 속심이다. 하지만 역적패당이 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견결히 고수하며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반통일폭압과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에게 파멸의 철추를 안기고야말려는 남녘인민들의 의지는 굳건하다.

북남관계를 총지박산내고 북남대결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반역의 무리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허 영 민

괴뢰호전광들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에 매여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5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55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을 계속 우리와 련결시키면서 무모한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의 길로 나가고있다.

리명박역도의 대결각본에 따라 괴뢰군부깡패들은 그 무슨 《무력시위》와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지난 27일부터 조선서해해상에서 구축함과 초계함을 비롯한 각종 함정 10척과 대잠초계기를 동원하여 함포사격과 폭뢰투하훈련을 강행하면서 전쟁광기를 부리였으며 우리측 령해에 전투함선집단을 매일같이 불법침입시켜 우리를 건드리는 군사적도발을 공공연히 감행하고있다.

또한 역적패당은 미제 7함대소속 해항공모함과 순양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미제침략군함선들을 끌어들여 조선서해해상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련합대잠수함훈련을 벌리려 하고있으며 1994년이후에 중단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맞먹는 미군과의 대규모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한편 우리에 대한 정보감시태세를 전쟁전야의 단계에로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U-2》고공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전략 및 전술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우리측 군사대상물들에 대한 정탐활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최전방일대에서 삐라살포와 전광판 및 확성기를 통한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재개하려 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적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적극 가담하여 우리를 해상봉쇄하고 공해상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들을 제 마음대로 뒤지게 하는 극히 도발적인 《역내외차단훈련》까지 벌리려 하고있다.

리명박역적패당이 미국과 결탁하여 감행하는 이러한 대결과 전쟁소동은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공갈이며 용납할수 없는 도전이다.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역적패당이 우리의 존엄을 헐뜯고 동족을 모해, 압살하기 위해 날조한 괴뢰군함선침몰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의 불집이 터질지 모를 폭발직전의 격동상태에 있다.

바로 이러한 첨예한 시기에 상대방을 자극하고 건드리는 사소한 도발이나 한방의 총성이 전면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더우기 괴뢰군부호전광들의 도발책동에 의하여 북남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군사적충돌이 벌어졌고 이번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이 조작된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도발과 전쟁소동이 어떤 후과를 빚어내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패당이 언제 불과 불이 오가고 철과 철이 맞부딪칠지 알수 없는 서해해상과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미국과 함께 우리를 위협하고 건드리는 대규모의 전쟁연습과 심리모략전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은 극도로 팽팽해진 북남관계를 전면전쟁에로 몰아가는 계획적인 도발책동으로서 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도, 겨레의 운명도 안중에 없는 대결미치광이, 전쟁열에 들뜬 극악한 호전광이라는것을 똑똑히 말해준다.

불을 즐기는자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괴뢰패당이 《응징》과 《보복》의 구실밑에 벌리는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소동은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자멸행위로서 저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응징》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보복》에는 가차없는 섬멸적타격으로 대답하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며 배짱이다.

만약 리명박패당이 무엄한 도발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무서운 징벌을 가할것이다.

괴뢰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와 기상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미제와 괴뢰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을 강력히 규탄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성원들

101차평화군축집회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녀성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25일 괴뢰국방부앞에서 101차평화군축집회를 가지고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북에 대한 강경정책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사건초기부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북의 소행》으로 몰아간것, 아무런 물증도 없이 《북의 어뢰공격》에 따른 침몰로 단정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것, 사건의 진실을 담고있는 자료들을 공개하기는커녕 《조사결과》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을 고소, 고발하여 그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려 한것 등은 함선침몰사건을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려는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라고 결의문은 까밝혔다.

결의문은 더우기 당국이 대북심리전재개를 시도하고 미해군무력과의 대잠함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있는것도 군사적충돌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평화실현을 념원하는 우리 민중은 저들의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해 민중의 생명과 평화를 유린하는 리명박《정권》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결의문은 주장하였다.

결의문은 남북관계를 전면적파탄에로 끌어가는 리명박《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천안》호침몰사건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전면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것을 당국에 엄숙히 요구한다.

우리는 리명박《정권》을 비호하며 침몰사건을 북에 대한 압박의 기회로 삼고있는 미국을 규탄한다.

우리는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집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26일 리명박역도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는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25일에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가 랑독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리명박역도가 괴뢰군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것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들며 헐뜯은데 대해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리명박역도가 감히 《책임》이니, 《사과》니 뭐니 하며 공화국배의 남측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발동,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같은것을 정식발표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고있다고 그들은 강력히 단죄하였다.

그들은 궁지에 몰린 역도패당이 외세와 야합하여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지만 그로부터 얻을것은 자멸밖에 없다고 언명하였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관계를 총지박산내며 조선반도에 끝끝내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리명박역적패당을 력사의 쓰레기통에 쓸어넣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스웨리예공산당 성명 발표

스웨리예공산당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규탄하여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괴뢰들이 《천안》호침몰과 관련한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이 우리 공화국을 비방, 규탄하는 깜빠니야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여론을 오도하는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또 다른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합법적인 구실을 만들려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1월 11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남조선주둔 미군 1만여명을 포함한 1만 8 000여명의 병력과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을 동원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대답하였다.

미제는 군사연습이 《방위적인것》이라고 묘사했지만 그것은 사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의에 공격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이였다.

미제와 그 하수인인 남조선괴뢰들이 벌린 전쟁연습은 정전협정에 심히 위반되는 행위였다.

그밖에도 남조선괴뢰국방부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해나섰다.

이처럼 전체 조선인민의 자주통일과 민족적단합, 평화와 복리에 대한 갈망을 저해하고 조선반도에 긴장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는것은 다름아닌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다.

스웨리예공산당은 미국과 일본, 남조선당국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

본사기자

《검열단 받아들이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남조선각계 단체들이 주장

지금 남조선각계에서 이번 함선침몰사건을 반역당국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산물로 규탄하면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여 《북풍》소동의 진상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지난 5월 20일 발표한 론평에서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한것은 반공화국대결책동의 산물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증거물》은 누가 보아도 조작에 의한것임을 부인할수 없고 설득은커녕 반발과 의혹만 불러일으킬뿐 납득하는 민중이 하나도 없다고 언급하였다.

론평은 현 《정권》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함선침몰사건을 《북에 의한것》으로 외곡함으로써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론평은 당국이 함선침몰이 《북과 련계》되여있다고 선포한것만큼 그에 대한 물증확인을 위한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이고 민중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청년련대도 5월 21일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는 내용으로 일관된 그 무슨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여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계속하여 론평은 당국이 사건내막을 올바로 밝힐수 있는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이번 《조사결과》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일으켜 《지방자치제선거》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조작품이라는 비난이 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객관성과 과학성,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조사결과》의 발표로 더욱 커진 민중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이 핵심자료들을 하루빨리 공개하는것과 함께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일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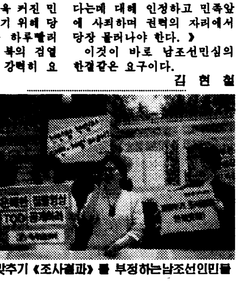
남조선의 《통일뉴스》 인터네트신문은 《군사정전위원회는 1994년 유엔군사령부측이 수석대표를 남조선군 장성으로 교체한것으로 하여 이미 유명무실화된 기구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구를 통해 《조사자료》를 넘겨주겠다는 당국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신문도 당국이 《조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북의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사결과〉발표놀음은 명백히 불순한 반공화국, 반민족적인 정치모략의 산물이다. 당국은 북의 검열단을 지체없이 받아들이고 이번 〈조사결과〉발표가 사건에 대한 올바른 규명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 외곡하기 위한 조작극이였다는데 대해 인정하고 민족앞에 사죄하며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김 현 철



짜맞추기 《조사결과》를 부정하는남조선인민들

갈수록 드러나는 모략극의 내막

남조선보수패당이 불순한 기도로부터 꾸며낸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이른바 《조사결과》의 허구성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괴뢰군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민군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면서 《증거물》이라는것을 내놓고 《북의 소행》이 립증되였다고 우기였다.

그때 《조사단》것들이 내놓은 《결정적증거》라는것을 보면 《함체의 변형된 모습과 어뢰추진부, 파편조각, 시체검사결과 그리고 해안초병의 물기둥목격진술》 등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증거》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숱한 의문을 자아내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어뢰추진부》라고 하면서 제시한것은 상태가 너무 온전하다고 한다.

이로부터 전문가들은 과연 함선을 두동강낸 어뢰가 폭발할 경우 그 추진부가 그처럼 온전할수 있겠는가고 의혹을 표시했다.

《조사단》단장이라는자도 이에 대해 《미국과 오스트랄리아관계자들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실토하였다.

괴뢰들은 함머리와 함꼬리, 연돌(굴뚝)에서 발견된 화약물질이 어뢰부분품에서 발견된 화약물질과 《성분분석결과가 거의 일치》하기때문에 《어뢰공격》이고 《북의 소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이다.

전문가들은 함선자체의 포사격훈련과정에 생긴 화약성분이 연돌 등에 붙었다가 발견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사단》이 이것은 배제하고 더우기 모의실험에서 함포화약과 비교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하고 결론을 서둘러내렸다고 하면서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반적으로 증거물이 사건원인규명에 실제 증거로 되자면 그자체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립증되여야 한다. 그런데 괴뢰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를 사건과 련계시키기 위해 얼멜멜한 추측과 어림짐작을 기초로 무턱대고 《사실》로 단정해버렸다.

몇가지 사실을 더 보자.

괴뢰들은 저들이 발견한 어뢰추진부에 마지크로 《1번》이라고 씌여져있는데 그 필체와 표기법이 《북에서 쓰는것》이라고 떠들면서 그것을 《결정적증거》의 하나로 내들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져냈다는 어뢰추진부의 글자가 거의 한달반동안이나 바다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되여 희미해진 모습이 전혀 없이 뚜렷한가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어느 한 기자가 《조사단》의 한 성원에게 《필적의 잉크를 분석해보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손상이 될수 있기때문에 후에 하기로 했다.》는 식의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집된것과 대조하지 않았고 분석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한 《조사단》성원은 어뢰추진부가 수십일동안 바다물속에 있었는데 그런 조건에서는 녹이 잉크우로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또렷한것으로 보아 《1번》이라는 글을 우리가 쓴것 같다고 하였다.

《증거》의 또 다른 하나라고 하는 사건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병의 《진술》도 어처구니없는것이다.

어뢰폭발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큰 물기둥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천안》함의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기자회견때 《물기둥을 보거나 물에 젖은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후 《좌현감시병의 얼굴에 물방울이 튀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사단》은 이외에도 백령도의 감시병이 함선침몰당시 《2~3초간 약 100m높이의 백색섬광기둥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그것이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그 《진술》들에 대해 《불빛 한점 없는 밤시간 그것도 수㎞ 떨어진 곳의 감시병이 어떻게 물기둥의 정확한 크기를 가늠할수 있었는지 그리고 100m이상 솟아오른 물기둥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좌현감시병의 얼굴에 약간의 물방울이 튀는 정도였는지 정말 의문이 간다.》고 하면서 물기둥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과학적근거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결국 《조사단》은 소경이 목격한 광경이나 귀머거리가 들은 소리와 같은것을 《결정적증거》라고 우긴것이다.

이외에도 함체의 변형된 모습은 오히려 좌초에 의한것이라는 분석이 전문가들속에서 보편화되고있으며 시체들에 손상이 없는 점도 어뢰폭발이 아니라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고 관측자들은 전하고있다.

역적패당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 기껏해서 꾸며낸 날조극은 이처럼 유치한것이다.

장 윤 남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불법행위

남조선의 《국회 천안함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소속 야당위원들이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괴뢰군부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합동참모본부》소속 현역장교들이 함선침몰과 관련한 일련의 자료들을 공개한 특별위원회위원인 민주로동당소속 《국회 의원》 리정희를 그 무슨 《명예훼손》혐의에 걸어 검찰에 고소하는 망동을 부린데 대해 폭로하였다.

이것은 야당의원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함선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불법행위라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이러한 행위가 누구의 명령과 승인하에 감행되였는지 반드시 밝혀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와 군당국이 사건발생초기부터 《조사결과》발표에 이르기까지 저들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대상들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일삼았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본사기자

심리모략전은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침략수법

심리모략전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전복, 지배하는데서 항시적으로 써오는 수법이다. 강권정책, 힘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는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심리모략전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감행되고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군비증강에 못지 않게 심리모략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미국에는 국가정보기관들, 군부내의 각종 정보기관들에 심리모략전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부서들이 꾸려져있다. 정보기관산하,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산하에 새로운 심리전수법들을 연구하는 기관들이 있다. 외교부문에도 심리모략기구들이 설치되여있다.

제국주의의 심리전은 심리모략전 전문가들의 착상과 연구결과에 의해 제안되고 해당 정부기관들을 책임진 고위인물들, 대통령 등의 지휘밑에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심리전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주요공간으로 삼고있다는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수 있게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심리모략전을 통해 반제자주적인 나라 인민들이 자기 위업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제국주의를 환상적으로 대하며 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항과 변절에로 나가게 하려 하고있다.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수십년간 존재하여온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것도 제국주의자들의 장기간의 《평화적이행》전략과 집요한 심리모략전의 산물이다.

랭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성장》, 《물질적번영》 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저들의 경제력과 생활필수품들을 가지고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민심을 유혹하였다. 미국은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켜 무너뜨릴 목적밑에 《자유방송》과 《자유유럽방송》을 내오고 그것을 통해 허위보도자료들을 대대적으로 내보냈다. 자본주의제도에 대한 《우월성》, 저들의 군사기술적《우세》와 《부유한》 물질생활 등에 대한 자랑과 사회주의에 대한 험담이 지면과 전파공간, 화면을 어지럽혔다.

당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이 몇백년 걸쳐서야 겨우 이룩한 경제적성과들을 불과 몇십년어간에 달성하였으나 사람들이 물질지상주의에 물젖지 않도록 경계하고 해당한 교양대책을 잘 세우지 못하였다.

미제의 심리모략전에 의해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이 커가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게 되였으며 사상의 자유화, 경제의 사유화를 제창하는 이색분자들이 생겨나게 되였다. 결국 이 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에 녹아나 사상정치적와해와 혼란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군사적침략에 앞서 사람들의 자주의식, 혁명정신을 마비시키고 사상정치적와해와 혼란을 조장하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라는것은 이라크사태가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이라크를 군사적으로 침략하기에 앞서 이 나라에 대한 심리모략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전쟁전에 방대하고 주도세밀한 심리전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대이라크전략의 중요내용으로 만들었다. 전쟁개시를 한달 앞두고 다른 나라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국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이라크공격에 대한 세계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것을 전문으로 맡아보는 《세계선전사무소》라는것을 새로 내왔으며 《새 소식방송국》이라는것까지 신설하였다. 전쟁 첫 시기 이라크의 공보시설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것과 동시에 라지오방송설비를 갖춘 미군특수전무력, 국경지역들에 꾸린 라지오방송기지들, 전자우편과 고속자동차, 직승기들에 설치된 이동식방송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허위선전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이것들은 이라크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군에 대한 환상을 조장시키기 위한것들이였다. 이라크군대와 인민들은 미국의 악랄한 심리모략전에 의해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분렬되였으며 군대안에는 미국의 군사적위력에 기가 눌리워 투항의식이 지배하게 되였다. 이라크군대의 고위지휘성원들은 미국의 딸라매수작전과 뢰물공세,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심리모략선전에 녹아 투항을 결심하고 중요한 군사비밀까지도 적들에게 넘겨주었다. 결국 이라크는 미국의 심리모략전에 녹아나 맥없이 패하고말았다. 이라크사태는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을 막지 못하면 비극적운명에 처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은 다른 나라들의 제도전복을 노린 포성없는 전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주권국가들의 지도부가 《인권탄압》을 한다느니, 《폐쇄정책》을 실시한다느니 뭐니 하고 악선전을 하고있으며 심지어 지도부인물들의 사생활에 속하는 허무니없는 내용까지 조작공개하며 인신공격을 일삼고있다. 그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밖으로는 이 나라들에 대한 영상을 흐리게 하여 저들의 침략과 간섭행위를 정당화하고 안으로는 이 나라들에서 지도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망을 떨어뜨리고 환멸감을 조성하며 나아가서는 지도부를 반대, 공격하도록 하려 하고있다. 원래 민족내부에 불화와 반목을 조장격화시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력대적으로 써오는 상투적수법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고립압살 또는 그 나라들의 정권교체, 제도전복을 노린 보이지 않는 위험한 비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심리모략전이 총폭탄보다 몇갑절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것을 숨기지 않고있다.

심리모략전의 후과로 민족자주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된 사람들속에서는 례외없이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과 무저항, 자기 위업과 자기 제도에 대한 불신과 배신이 싹트게 된다. 바로 여기에 제국주의자들이 벌리는 심리모략전의 위험성과 해독성이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세계를 대상으로 모략적인 방송작전을 확대하고있다.

미국은 특히 이란에 대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의 소리》방송이 이란을 대상으로 한 방송프로를 개시한것은 그 단적인 실례로 된다. 그 리면에는 민심을 소란하게 하고 반정부기운을 고취하여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려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VOA방송국 대변인은 《자립을 지향하여 싸우는 이란국민에게 세계의 정확한 새 소식을 전하는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떠들었는데 그것은 이란에서 반정부시위를 조직한 반대파그루빠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한것으로 된다.

제국주의자들은 군사력도 심리전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리용하고있다. 군사비증강, 새로운 대량살륙무기들의 개발과 배비, 군사동맹의 확대강화,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대규모전쟁연습 등 제국주의자들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움직임들의 리면에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사람들속에서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한편 이 나라들을 군비경쟁에 끌어들여 맥을 뽑아 저들의 지배주의적목적을 손쉽게 실현하려는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이 채 완성되지도 않은 시험적인 단계에 있는 무기들을 뜨문히 공개하는것도 일종의 심리모략전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경우 그것을 일정한 기간 비밀에 붙이는것이 관례로 되고있지만 미국은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한 무기를 그것도 위력을 과장하여 공개하는 놀음을 곧잘 벌리고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어 손을 들고 나앉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각종 선전수단들을 통해 별의별 허위자료들을 날조하여 류포시키면서 저들의 침략과 전쟁행위에 《정의》의 외피를 씌우는 한편 《협력》과 《교류》의 간판밑에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심리모략전의 위험성과 그 수법을 똑바로 간파하고 그것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할것이다.

리 현 도

중국 《인민일보》의 글

약동하는 조선의 모습

중국의 《인민일보》 17일부가 《새로운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제목으로 본사 청년기자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게재하였다.

방문기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노래와 기운차게 돌아가는 기계의 동음, 바삐 일손을 다그치는 로동자, 농민들, 활력에 넘쳐있는 어린이들이 오늘의 조선의 약동하는 사회적모습을 구가하고있다.

우리가 짧은 며칠동안에 보고 들은것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강성대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조선의 힘있는 전진이였다.

경제건설에서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가 창조되여 조선의 전진을 적극 추동하고있다.

방문기는 《경공업과 농업에 힘을 넣는다》라는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파란 제복을 입은 맵시있는 녀성교통보안원, 외국의 벗들에게 친절하게 손을 흔드는 소학교학생들, 의젓한 자세로 힘있는 걸음을 내짚는 행인들…

이것은 하나의 진취적인 힘이였다.

새해를 맞으며 조선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공동사설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여 2010년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전당적, 전국가적인 총공세를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인민생활향상, 이것은 조선로동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지난해에 벌린 150일전투와 100일전투를 통해 조선의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경공업부문의 생산토대와 잠재력이 가일층 강화되였으며 공업총생산액은 훨씬 장성하였다.

방문기는 《고도과학기술의 미래를 향하여》라는 소제목을 달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과학기술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열쇠이다.

모든 힘을 다해 경제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조선은 새 기술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모든 전선에서 기술혁신의 고조를 일으키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우고 새로운 내화물을 개발도입하였으며 보산제철소에서는 주체철생산공정에 콤퓨터자동조종체계를 도입하고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는 조선식의 주체철용광로를 건설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방문기는 조선정부는 언제나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를 중시해왔다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사들, 체육관, 도서관 특히 전자도서관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방문기는 《갈수록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소제목을 달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방문소감을 서술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를 변함없이 실시하고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중봉사시설건설을 추진하고있으며 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작되고있는데 대하여 방문기는 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역적패당이 내놓은 〈대북대응책〉을 용서없이 짓부셔버릴것이다》를 27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한 남조선의 대응에 대처한 7가지 조치를 발표하였다.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하여 조선군대가 리행하게 되여있는 모든 군사적보장조치들을 전면철회할것이다.

당면하여 동, 서해지구 군통신련락소의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북로통행의 전면차단검토에 착수할것이다.

2. 남조선군부가 재개하려는 반공화국심리전책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선에서 조선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이 이미 경고한대로 무자비하게 대응할것이다.

3. 조선서해해상에서 우발적충돌방지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쌍방합의를 완전히 무효화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해상초단파무선대화기사용을 일체 중단하며 긴급정황처리를 위하여 개통하였던 통신선로는 즉시 단절할것이다.

4. 조선서해 조선측 해상분계선에 대한 침범행위에 대하여서는 즉시적인 물리적타격이 가해질것이다.

5. 조선의 령해, 령공, 령토를 통한 남조선의 함선, 비행기 및 기타 기동수단들의 통과를 전면 불허할것이다.

6. 남조선당국자들의 조선경내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엄금할것이다.

7. 조선국방위원회 검열단에 대한 차단행동이 계속되는 한 《남조국》, 《모략국》의 정체를 끝까지 까밝히게 될것이다.

미국의 AP통신,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 VOA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 NHK방송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내용을 전하였다.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외무상회의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외무상회의가 22일 우즈베끼스딴의 따슈껜뜨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기구성원국 외무상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및 지역문제해결에서 호상협력을 강화하고 상해협조기구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다음달에 진행될 상해협조기구성원국 수뇌자회의준비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이 합의되였다.

회의끝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아프가니스탄문제를 군사적방법으로 해결하려는것을 반대하는 기구성원국들의 립장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륙나라들의 단합을 호소

짐바브웨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가 25일 아프리카의 날에 즈음하여 진행된 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대륙나라들의 단합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 40여년동안 아프리카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사회경제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였다.

현재 대륙이 직면하고있는 사회경제적난관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자면 평화와 정치적안정을 이룩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는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국가정변음모의 주범

볼리비아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정변을 사촉한 미국의 음모를 폭로단죄하였다.

그는 볼리비아에서 2008년의 국민투표결과 현 정부의 재집권이 실현되자 미국대사가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국가정변을 시도하였다고 까밝혔다.

그러나 이 음모책동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미국대사는 볼리비아에서 쫓겨났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은 국가정변음모의 주범이라고 규탄하였다.

그는 현재 나라에서 추진되고있는 민주주의혁명은 집권당에 의해 지도되고있으며 당은 지난 시기 버림받던 사람들속에 뿌리박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신형전투기들을 증강배비

미국이 일본을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일미군기지들에 전투기들을 증강배비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26일 미공군 《F—22A 랩터》 스텔스전투기 12대가 미국본토로부터 일본 오끼나와현에 있는 가데나미공군기지에 이동전개되였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지역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는것으로서 커다란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본사기자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전원회의가 17일부터 22일까지 비엔티안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 제9차대회에 제출할 문건초안과 제7차 5개년 사회경제발전계획(2011—2015년) 초안, 2010—2011회계년도 예산안이 토의되였다.

전원회의는 상품생산을 높이고 빈궁과 부정부패를 청산하며 나라의 발전을 다그쳐나갈데 대해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수출 증대

타이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5% 증가하였다.

4월 한달동안에만도 수출액은 35.2% 늘어났다 한다.

26일 이 나라 상업상이 이에 대해 밝혔다.

사회경제발전계획

방글라데슈정부가 25일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2010—2011회계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농업, 에네르기, 수송, 교육 등 분야에 많은 자금이 돌려지게 될것이라고 한다.

야자기름 수출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첫 4개월동안에 465만t의 야자기름을 수출하였다.

25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전력증산노력

우간다에서 전력생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에서는 지난 5년동안 수력자원뿐아니라 재생에네르기원천들을 적극 탐구리용하는 등 전력공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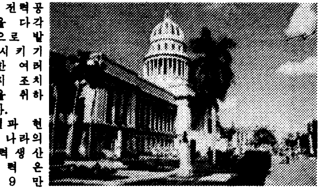
결과 현재 나라의 전력생산능력은 59만 1 000kW로 증대되였다 한다.

대외무역성과

브라질에서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대외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 증대되였다.

24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본사기자



꾸바의 수도 아바나

오늘의 세계

핵연료교환합의에 대한 상반되는 립장

이란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새로운 분위기가 마련되고있다.

지난 17일 이란은 뛰르끼예, 브라질과 함께 핵연료교환합의문에 조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란은 뛰르끼예에 순도가 3.5%인 1 200kg의 농축우라니움을 보내며 그대신 자국의 의학연구용원자로에 필요한 20%순도의 농축우라니움 120kg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합의는 이란의 평화적핵활동과 관련하여 테헤란에서 진행된 이란대통령과 브라질대통령, 뛰르끼예수상사이의 3자회담에서 이룩되였다. 회담에서 3개국 지도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아무런 차별없이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으로 연구, 생산 및 리용할 권리가 있다는것을 재천명하였다.

합의문은 핵연료교환거래에 관여하는 윈그루빠(이란, 로씨야, 프랑스,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의 승인을 받으면 빠른 시일안에 리행될것이라고 한다.

합의문이 조인된 후 이란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유관국들이 자기 나라와 솔직하고 공정하며 호상존중에 기초한 회담을 시작할 때이라고 말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이란핵문제해결을 위한 이번 핵연료교환합의문채택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지난 18일 레바논대통령은 이란, 뛰르끼예, 브라질이 핵연료교환문제와 관련하여 이룩한 중요한 합의가 이란핵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공세의 시작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번 합의로 지역정세가 완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레바논은 무력에 의한 해결책대신 외교적인 해결책을 주장하며 유연하면서도 론리적인 대화가 그 어떤 문제나 위기를 타개하는데서 가장 좋은 방도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뛰르끼예외무상은 3개국사이에 이룩된 핵연료교환합의가 이란에 대한 일부 나라들의 부정적인 견해를 타파하는데서 돌파구로 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에 합의된 핵연료교환이 핵에네르기를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려는 이란의 의향을 증명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란은 합의를 이룩하는것으로 유연성과 정치적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아랍국가련맹, 이슬람교국가회의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도 이란, 뛰르끼예, 브라질이 이룩한 핵연료교환합의를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란핵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 이바지하기를 바라고있다.

이번 핵연료교환합의문이 평화적인 핵기술개발에서 객관성과 명백성을 보장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평화적핵활동을 한사코 《핵무기개발》로 몰아붙이려는 미국 등 서방세력의 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이란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이룩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국은 핵연료교환합의문의 채택을 이란정부가 유엔의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꾸며낸 또 하나의 《지연전술》로 묘사하면서 대이란제재책동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 17일 미백악관 대변인은 핵연료교환합의문이 채택되였어도 이란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결심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흑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은 다음날 유엔안보리사회에 새로운 대이란제재결의초안을 제출하였다.

새 결의초안에는 이란에 대한 핵 및 탄도미싸일관련설비와 기술제공금지, 이란이슬람교혁명근위대 성원들의 해외구좌동결과 그들의 해외려행금지, 항구와 공해상에서 이란화물선들의 검색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다.

외신들은 유엔안보리사회에 제출된 미국의 이번 대이란제재결의초안이 지난 시기의 제재조치들에 비해 훨씬 가혹한것이라고 평하면서 가령 이란이 평화적핵활동을 그만둔다하여도 대내외정책에서 원칙적립장을 계속 견지하는 한 이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계속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란핵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핵연료교환합의문이 채택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이란압박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미국의 책동은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19일 이란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자기 나라를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결의안을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채택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것은 그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고 조소하였다.

브라질, 뛰르끼예, 레바논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미국의 대이란제재결의초안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번에 채택된 핵연료교환합의문이 이란핵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의 계속되는 대이란적대시책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이란핵문제해결의 유리한 분위기가 파탄될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고있다.

며칠전 이란국회 의장은 만약 유엔안보리사회에서 미국의 부당한 대이란제재결의안이 통과되는 경우 핵연료교환합의는 무효화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공정한 국제사회계는 이란의 평화적핵활동을 범죄시하는 책동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미국에 세계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그릇된 행동을 그만둘것을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정치난쟁이의 체질적한계를 드러낸 굴욕적인 합의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놓고 일본이 시간을 끌지만 종당에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것이라고 한 정세분석가들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지난 22일 일미 두 나라는 회담에서 후텐마미군비행장의 이설지를 일본 오끼나와현 나고시 헤노꼬연안지역으로 한다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하또야마정부가 미국에 양보하여 후텐마미군비행장을 오끼나와현밖으로 이설하겠다던 초기의 공약을 줴버린것으로 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사회는 죽가마 끓듯 하고있다. 오끼나와주민들은 물론 일본각지에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실망과 개탄, 울분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9월 일본민주당은 자민당의 부패한 정치와 결별하고 특히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수립을 표방해나선것으로 하여 민심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장악하였다. 새로 출현한 민주당정권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정책적과제의 하나가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였다.

지난해에 하또야마정부는 《년말결착》을 목표로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는 처음부터 미국의 압력에 부딪쳤다. 일본을 하수인으로 여기는 미국이 저들과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는 하또야마정부를 그냥 놔둘리 만무하였다.

미국은 로골적으로 《일본죽이기》에 들어갔다. 미집권자는 지난해 11월에 있은 미일수뇌자회담시 일본집권자를 쓴외보듯 하며 고압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정계에서는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쉬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국민의 《덕》을 입은 하또야마정부로서는 미국의 압력에 선뜻 굴복할수가 없었다.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는 국내에서도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주일미군의 각종 범죄행위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일본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에 미군기지가 설치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고있다. 미군기지의 국외에로의 이전은 더욱 난항하였다. 결국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는 지난해에 《결착》되지 못한채 해를 넘기였다.

그렇게 되자 일본국내에서는 하또야마정부의 《정권운영능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또야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률은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때를 만난듯이 정부를 공격해나섰다. 그들은 아무런 방안도 없이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하또야마정부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일미관계가 풍지박산나는것은 물론 일본의 《안보》에 구멍이 뚫릴수 있다고 아부재기를 쳤다. 미국은 한수 더 떴다.

미집권세력은 만약 하또야마정부가 빠른 시일내에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종결짓지 못한다면 미국이 《일미안보조약》개정 50돐을 계기로 쌍무동맹관계의 재검토를 위한 협의를 중지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4월 미집권자는 《핵안보수뇌자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을 행각한 일본집권자를 만찬회장에서 잠간 만나 일본이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를 5월말까지 무조건 결판낼것을 강박하였다. 일본집권자는 상전의 무례한 요구에 기분이 잡쳤지만 그에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지만 일본의 어느 현도 후텐마미군비행장을 자기 현내에 두는것을 달가와하지 않는 조건에서 5월말을 가까이한 하또야마정부로서는 조급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생각끝에 고안해냈다는것이 바로 후텐마미군비행장의 헤노꼬연안지역에로의 이설과 비행장의 일부 기능을 다른 곳에 떠맡긴다는 안이다.

이것은 2006년에 미국과 일본자민당 및 공명당련립정부가 체결한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협정내용과 비슷한것으로서 국내에서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23일 오끼나와현 나고시 시장은 수상 하또야마와 가진 회담에서 후텐마미군비행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현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조건에서 그 실현가능성은 령에 가깝다고 딱 잘라말하였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과 집권련립을 이루고있는 사민당 당수는 《오끼나와현민과의 합의, 련립정권내에서의 합의가 없이 어째서 일미합의가 선행되였는지 도무지 리해할수 없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사민당안에서는 련립정권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그로 하여 민주당중심의 련립정권이 붕괴될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정치적자주성이 없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계획의 현행안을 거의 그대로 집행하기로 한 하또야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분노의 목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고있다.

세계언론들은 후텐마미군비행장이설문제에 관한 일미정부간 합의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일본이야말로 같데 없는 정치난쟁이라고 야유, 조소하고있다.

본사기자 서 남 일

ㄱ-01094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실 321-4328. 편 집 위 원 회